제4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

■ 때 : 1997년 10월 18일
■ 장소 : 익산시 실내체육관

영광우도농악

전라남도

영광우도농악

해 설

무형문화재 제17호 영광우도농악은 영무장농악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영무장농악이란 영공, 고창, 장성, 함평 등지의 우도농악을 말하는 것으로 영광, 무창(고창)이 중심이 되어 발전한데서 유래된 말로서 옛날 낭걸립패들이 하던 신청농악에 뿌리를 둔 걸궁농악이다.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예능적인 면에서 다양하고 화려함을 갖추고 있다.

설장구, 부포놀이, 꼬깔소고 등 개인놀이가 잘 발달하였고 가락은 약간 느린 편이며 벙어리 가락을 많이 사용한다. 또한 잡색의 기능이 중요시되고 모두 나무로 만든 탈을 쓰고 연극놀이하는 것은 영광농악에서만 볼 수 있다.

특 징

- **첫째** : 전토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복색, 개인놀이, 진법 등이 화려하게 짜여져 있어 최고의 걸궁농악이라 할 수 있다.
- **둘째** : 잡색의 수 (10명)가 많고 모두 나무로 만든 탈을 쓰고 연희하는데 탈놀이가 농악에 가미되어 있는 것은 영광농악에서만 볼 수 있다.
- **셋째** : 굿가락이 비교적 느리고 벙어리 가락을 많이 사용하여 가락을 조였다풀었다 하며 긴장과 이완을 잘 표현한다.
- **넷째** : 부포놀이, 장구놀이, 잡색탈놀이등 개인놀이가 다양하고 뛰어나며 특히 지금은 사라져가는 '꼬깔소고'가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 **다섯째** : 상쇠와 쇠꾼, 쇠꾼과 장고잽이들이 교대로 연주하는 '짝드름'이 잘 발달되어 있다.
- **여섯째** : 잡색과 치배가 적군과 아군으로 나뉘어 연희하며 군기가 엄하다.

구성과 순서

■ **제 1 장** : 모듬굿

■ **제 2 장** : 오채질 굿

■ **제 3 장** : 오방진

■ **제 4 장** : 허허굿

■ **제 5 장** : 개인놀이 (구정놀이)
- 잡색탈놀이
- 법고놀이 (꼬깔소고)
- 북놀이
- 부포놀이 (짝드름)
- 장구놀이 (설장구)

■ **제 6 장** : 인사굿

영광우도농악잡색탈놀이 모습

진행순서

1. 모듬굿
2. 오채질굿
3. 오방진
4. 허허굿
5. 개인놀이 (구정놀이)
6. 인사굿

영광우도농악 자색탈 홍적감, 할미, 우창, 조리승, 각시, 대포수, 비리쇠, 양반, 좌창, 참봉

모듬굿

굿의 시작을 알리며 서서히 흥을 올려 시선을 굿판에 집중하게 만든다. 자진일채, 음매갱갱을 치고 늦은 삼채를 치며 입장하며 인사를 한다.

오채질굿

영광 우도농악의 가장 어려운 채굿의 하나로서 징을 다섯번 치는데 매우 어렵다. 2분박과 3분박이 혼합된 혼합박자이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질굿과 시계 방향으로 도는 자진오채질굿이 있다. 이어서 늦은 벙어리삼채, 된벙어리 삼채등 벙어리 가락을 많이 치다가 된삼채, 음매갱갱, 자진일채로 숨가쁘게 몰아간다.

오방진

오방돌기라고도 한다. 성안에 도둑이 들까 염려되어 동, 서, 남, 북 사방문을 단속하는것으로 가장 역동적이고 흥이난다. 특히 쇠꾼이 먼저 원안으로 들어가 놀고 이어서 장구가 연풍대로 들어가 두줄을 만들어 투전치기, 미지기등을 하는 한바탕은 좋은 볼거리다. 오방전, 자진오방전, 일채덩덕궁이, 구정놀이 가락 순으로 한다.

허허굿

허허굿은 군사훈련에서 점호를 하는것과 같은 굿으로 가락과 진, 외치는 소리를 통해 대동단결의 모습을 보인다. 좌우진퇴, 연봉치기 등 다양한 진법을 짜고 곡식심기, 김메기, 콩동지기, 콩꺽기등 노동의 모습도 보여주며, 서로 등을 대고 밀었다 당겼다 하다가 몸을 빼내 상대를 넘어뜨려 웃음을 자아낸다.

개인놀이

●구정놀이●
(잡색 탈놀이)

농악에서 많은 수(10명)의 잡색이 오동 나무로 만든 탈을 쓰고 적군이 되어 연극놀이를 하며 굿판을 짜는 모습은 현재는 유일하게 영광농악에서만 볼 수 있으며, 영광농악의 특징 중 하나이자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판굿에서 잡색은 관중을 웃기고 허튼춤을 춘다. 대포수는 적군의 장수이고 양반, 참봉, 할미, 각시는 이름과 같은 성격과 역할이며, 비리쇠는 코가 커서 장가를 못갔고 홍적삼은 술을 많이먹어 얼굴이 붉다.
조리승은 각시를 유혹한다. 탈, 복색, 각각의 개인 춤들이 잘 전승되어 있다.

법고놀이

●꼬깔소고●

꼬깔소고, 꾸리북이라고도 하는 법고놀이는 김양술, 강대륙, 정창환, 박용하 선생님으로 이어지는 법제를 그대로 따랐다. 현재 전국적으로 채상소고가 성하여 꼬깔소고는 거의 사라져 가고 있지만, 멋과 흥이 듬뿍 묻어나오고 가락을 분명하게 쳐주며 실을 꾸리에 감듯이 하고 꾸리북감기 등 꼬깔소고의 독특한 예술성이 영광우도농악에서는 잘 보전되어 있다.

부포놀이

●짝드름●

부포상모 (뻣상모)놀이는 우도농악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윗놀이다. 이것을 상쇠와 쇠꾼이 교차로 연주하는 짝드름을 하면서 연희한다. 명인 전경환 선생님의 부포놀이와 가락을 그대로 따랐다.

장구놀이

●설 장 구●

설장구는 우도농악에서 특히 발달하여 그 예술성이 가장 뛰어나다 하겠다. 김오채, 김동언으로 이어지는 법제로 연주한다.

인사굿

갖가지 진을 감았다 푸는 활동적인 굿을 친다. 미지기, 투전치기 등을 하며 세련되고 정형화된 진풀이를 하고, 마지막으로 상쇠가 부포놀이를 하고 인사굿을 친 후 굿을 마친다.

퇴 장

●설 장 구●

굿을 끝내고 삼채를 치면서 퇴장한다. 자진일채로 몰아 모든 공연을 마친다.

출연자명단

(지도 : 최　　용)

담당역할	성　명	연령	성별
상　쇠	문 은 숙	19	여
부　쇠	유 경 화	18	여
쇠	문 춘 심	19	여
쇠	오 윤 경	18	여
쇠	김 보 광	17	여
쇠	이 효 민	17	여
설 장 구	김 미 래	19	여
부 장 구	한 경 희	18	여
장　구	문 유 미	19	여
장　구	김 윤 정	19	여
장　구	박 은 경	18	여
장　구	김 보 미	18	여
장　구	장 원 석	18	남
장　구	김 민 주	17	여
장　구	전 병 관	17	남
설　북	성 순 이	19	여
부　북	최 현 화	18	여
북	최 현 숙	19	여
북	김 영 애	18	여
북	박 현 정	18	여
북	박 영 숙	19	여
북	김 지 영	17	여
설 법 고	윤 윤 정	17	여
부 법 고	김 주 아	17	여
법　고	박 양 선	17	여

담당역할	성　명	연령	성별
법　고	김 윤 미	17	여
법　고	오 윤 미	17	여
법　고	장 수 연	17	여
법　고	김 해 숙	17	여
법　고	박 주 연	18	여
법　고	김 은 영	17	여
법　고	이 미 숙	17	여
법　고	문 순 재	19	여
수　징	황 도 윤	17	남
부　징	곽 동 구	17	남
징	이 정 은	17	여
대 포 수	이 보 형	17	여
양　반	이 민 숙	17	여
할　미	장 미 란	18	여
조 리 승	양 윤 호	17	남
홍 적 삼	조 정 하	18	여
좌　창	김 현 정	18	여
우　창	김 경 인	18	여
비 리 쇠	김 지 은	17	여
각　시	이 수 진	17	여
참　봉	양 홍 영	17	남
기　수	노 영 희	17	여
기　수	김 지 선	17	여
기　수	김 은 선	18	여

영광의 자랑 '굴비'